

6·25전쟁기 피아 지상무기의 운용

姜 昌 國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1. 서 언
2. 기동무기의 운용
3. 화력무기의 운용
4. 지상무기 운용분석과 영향
5. 결 언

1. 서 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집단의 김일성이 기습적으로 38도선을 돌파
남침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3년 1개월이나
계속되는 동안 쌍방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면서 남으로는 낙동
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
투를 전개하였다.

“전쟁은 무기가 수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6·25전쟁에서도 전황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바로 武器(Weapon)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

쟁이 진전되면서 한국군 및 유엔군과 공산군이 운용한 武器體系¹⁾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6·25전쟁은 전쟁사적 관점에서 현대전쟁의 성격을 띠지만²⁾ 핵무기가 개발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在來式武器³⁾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制限戰爭(Limited War)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피아가 경쟁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정치외교사, 軍事史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⁵⁾ 이렇듯 무기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했다.⁶⁾ 그 이유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무기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연구와 전쟁사 연구를 접목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6·25전쟁기의 피아의 지상무기 운용사례와 전쟁에 미친 영향이 어떠

-
- 1) 최근에는 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기와 인원, 소프트웨어(Software),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 體系(System)가 필요하기 때문에 武器體系(Weapon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21세기군사연구소, 2003), p. 23 참조.
 - 2) 김인주, “해병대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군사논단』 통권 제34호(한국군사학회, 2003년 봄), pp. 102~104 참조.
 - 3) 在來式武器(Conventional Weapon)란 核武器,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총칭으로 통상 武器 또는 非核武器라고도 한다.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1999), p. 451; 합동참모본부, 합동참고교범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1998), p. 345 참조.
 - 4) 制限戰爭(Limited War)이란 한정된 지이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지역, 사용수단, 사용무기, 병력 및 달성해야 할 목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무력전을 말한다. 육군본부, 위의 책, p. 528; 합동참모본부, 위의 책, p. 421 참조.
 - 5) 6·25전쟁에 관한 정치외교사 중심의 연구는 이호재, 『한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이승만의 외교와 미국』(법문사, 1975); 라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1950~1954)』(전예원, 1994);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나남출판, 1996);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박영사, 1997);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참조. 6·25전쟁에 관한 군사사 중심의 연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 국방부, 『韓國戰爭史』(1976);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1990);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1995) 참조.
 - 6) 최석철, 앞의 책; 나중남, “한국전쟁에 사용된 피아 주요무기 비교”, 『국방과 기술』 2000년 6월호(방위산업진흥회) 참조.

<표 1> 6·25전쟁 초기 한국군과 북한군의 지상 무기 현황⁷⁾

지상 무기	한 국 군	북 한 군
전 차	0	T-34(85mm 포) 242대
장 갑 차	24대(37mm 포)	BA-64(37mm 포) 54대
장갑차주포	0	SU-76(76.2mm) 176문
곡 사 포	105mm(M3) 88문 91문 중 3문 고장	122mm 172문, 76.2mm(평사/곡사포) 380문
박 격 포	81mm 384문, 60mm 575문	120mm 226문, 82mm 950문, 61mm 1,142문
대전차무기	57mm 140문, 2.36~1,900문	45mm 1,142문
대공 화기	0	85/37mm 36문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때로는 무기별로 구체적인 운용사례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6·25전쟁 당시 한국군 및 유엔군과 공산군이 사용한 지상 무기 가운데 기동 무기 중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화력 무기 중 소총, 기관총, 대전차 무기, 박격포, 화포의 운용 분석과 전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동 무기의 운용

무기의 효과 요소는 기동성(Mobility), 화력(Firepower), 생존성(Survivability)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 사용되는 무기를 기동 무기라고 한다. 기동 무기는 전차, 장갑차, 기동 지원 장비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전차는 경·중(中)·중(重)전차, 구난전차 등의 장갑 차량류로 구분한다.⁸⁾

7)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요약통사(1990), p. 115 참조.

6·25전쟁 개전 당시 한국군과 북한군의 병력 비율은 2:1 정도로 북한군이 우세하였으나,⁹⁾ 무기와 장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더욱 심하였다.¹⁰⁾ 북한군은 T-34전차¹¹⁾ 242대를 보유하는데 비하여 한국군은 전차는 전무하였고,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화기나 항공기를 공격할 대공화기도 갖추지 못하였다.

본장에서는 기동무기 중 6·25전쟁에서 사용된 전차와 장갑자주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전 차¹²⁾

전차란 무장 裝甲한 차체에 無限軌道(Caterpillar)를 갖춘 공격병기로서 타격력·방어력·기동력을 갖춘 병기로서 일반적으로 장갑차·자주포 등을 가리키며, 넓게는 裝軌式 전투차량을 말한다. 전차와 비슷한 것으로 장갑

-
- 8) 국방부,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727호, 2003.2.1), pp. 5~6.
- 9) 6·25전쟁 초기 한국군의 병력은 육군 8개 사단 등 94,974명, 해군 7,715명, 해병대 1,166명, 공군 1,897명으로 계 105,752명이며, 북한군의 병력은 육군 10개 사단 등 182,700명, 해군 4,700명, 육전대 9,000명, 공군 2,000명으로 계 198,400명이었다.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1995), pp. 33, 59~60 참조.
-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①-戰爭의 背景과 原因』(2004. 6), pp. 680~681.
- 11) 소련제 T-34는 1944년에 대량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T-34의 85mm포 또는 SU-85의 85mm포, 85mm야포, 85mm고사포 M1939는 동일한 포탄을 사용한다. 이 전차는 궤도 지지롤러가 없고, 5개의 대보기륜이 있다. 동체의 장갑은 경사지고 사각형 모양의 전방 펜더(fender) 그 위로 동체가 보인다. 포탑은 밀이 잘록하고 사각형 모양의 포탑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포신은 소염기가 없으며, 대공 기관총이 포신 위에 장치된다. T-34전차와 유엔군이 운용한 전차의 성능 및 체원 비교는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http://rt66com/~korteng/Smallarms/tanks.htm> 참조.
- 12)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위의 자료 참조. 6·25전쟁시 사용된 전차 및 장갑차의 종류 및 성능에 관한 내용은 Bert Kortegaard의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T-34전차에 대한 내용은 육군본부, 팸플릿 355-29-2 『적의 장비 식별』(1963)과 미 극동사령부, *History of the North Korea Army*, 1952, Appendix I 참조.

자주포는 화포를 트랙터 위에 실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한 것으로 전차와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장갑방어력의 부여와 기동력의 향상에 따라 구조상으로는 전차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중 고착된 참호전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초 출현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 개량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지상전투에서 주요한 무기체계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적진지를 돌파하여 목표를 점령하는데 있었다.

1950년 6·25전쟁 초기에 한국군과 유엔군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북한군의 T-34전차였다. 1950년 7월 미군의 소형 M-24 채피(Chaffee) 전차가 최초 투입되었으나 북한군 T-34전차에 맞서기는 힘들었다. 이후 미군은 부산항을 통해서 전투물자를 증강¹³⁾하던 8월과 9월 이후 90mm 주포를 가진 M26 퍼싱(Pershing)전차¹⁴⁾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명성을 날린 M4A3 셔먼(Sherman)전차¹⁵⁾가 투입되어 미군 전차부대의 주력을 이루었다. 미군 전차들은 비교적 구식 모델이라서 몸체는 크지만 장갑은 얇고 주포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전차 운용에 제한이 많은 한국지형에서 필수적인 신속한 기동성을 보유했기 때문에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영

13) 미 제8군은 주로 在日 재고품으로써 각종 지원을 시작하였고, 부족한 것은 미 본토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 7월 10일경 3.5인치 로켓포와 4.2인치 박격포탄을 부산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였다. 도쿄 병기장에서는 재고 장비의 수리와 아울러 변형 제작도 하여 구형전차를 M4A3전차로 변형하고, 105mm 야포의 포차와 M15A1 반궤도 차량을 한국지형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1995), pp. 243~244 참조.

14) M26 퍼싱(Pershing)전차는 낙동강 유역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 해병대가 운용하기도 하였다. 퍼싱 전차는 고장이 잘나고 운전하기가 불편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T-34전차를 제압하는 화력과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6·25전쟁 기간중 약 300대가 운용되었다.

15) M4A3E8 셔먼(Sherman)전차, 일명 이지 에잇(Easy Eight)은 6·25전쟁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된 미군 전차(1950년 말부터 약 680대 도착)였다. 여기에 갖춰진 76mm 포는 T-34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데다 고장이 적고 운전하기 쉬워 전차병들은 오히려 강하고 튼튼한 퍼싱보다는 셔먼을 좋아했다.

국군의 M41 센추리온(Centurion)¹⁶⁾전차보다 큰 활약을 하였다. 미군은 대전차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적 전차를 견제 및 제압하려 하였을 뿐, 유럽전역에서와 같은 대규모 전차 운용은 시도하지 않았다.

공산군의 주력전차였던 T-34는 1944년에 완성된 비교적 최신 모델이었으며, 35톤의 중량을 가졌으나 시속 55km 정도의 신속한 기동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지형에 적합한 전차였다. 실제로 나중에 투입되었던 미군의 M46 패튼(Patton)전차¹⁷⁾는 성능은 비슷했으나 한반도의 지형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 기갑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었다. 전차의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중이었으며, 부대들도 상당수가 해체되어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즉각 파견할 수 있던 전차부대는 3개 대대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의 주력전차로 활약했던 M4A3 셔먼전차도 일본 도쿄 등지의 미군 창고에 보관중이던 것을 수리해야만 했다. 퍼싱전차는 원래 독일의 괴물 전차를 대응하기 위한 전차만큼 T-34전차의 상대로 손색이 없었으며, 셔먼전차도 일단 T-34전차보다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나 최소한 정면대결은 가능한 장갑과 화력이 강화된 개량형, 일명 M4A3E8 ‘이지 에잇(Easy Eight)’이었다. T-34전차의 85mm포를 막아낼 방어력은 부족했지만 T-34전차에 파괴된 셔먼전차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1950년 8월 초부터 부산을 통

16) 戰車を 처음으로 실용화했던 영국은 194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신형전차의 개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그 결과로 개발된 것이 M41 센추리온(Centurion) AVRE(Armored Vehicle Royal Engineers)전차이다. 6·25전쟁에는 주로 MK6 센추리온(105mm포)전차가 투입되었다. 센추리온전차의 생산과 재생산은 1962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423대가 완성되었다. (주)군사정보, 『세계의 전차』 1946~2000(2000), pp. 11~13 참조.

17) M46 패튼(Patton)전차는 1948년에 10대의 시제차량(T40)이 발주되었으며, 1948년 7월 30일 M46중전차 패튼으로 정식 명명되었다. 1950년에는 M26 1,215대를 M46으로 개조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1951년 4월까지 360대가 새롭게 생산되었는데 M46A1으로 변경되었고 1950년 8월부터 6·25전쟁에 투입되었다. (주)군사정보, 위의 책, pp. 14~15 참조.

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셔먼전차는 8월 2일, 미 육군 제89셔먼 전차대대에 배치되어 낙동강선 방어작전에 투입되어 북한군의 45mm 대전차포에 8대나 격파당했다.¹⁸⁾ 북한군은 경사진 곳에 이 포를 배치하여 셔먼전차의 장갑이 약한 뒤쪽, 혹은 경사를 오를 때 전차의 바닥을 지향하여 공격하는 방법을 북한군이 사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반면에 북한군 기갑부대의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강력한 T-34전차였으나 적절한 운반수단 없이 자체 힘으로¹⁹⁾ 북한지역에서 경상도 지역까지 300km 이상 기동함으로써 마모가 심하여 상당수가 기동력 발휘에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유엔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공중공격으로 북한군 T-34전차 100여대를 파괴시켰음은 물론 전차의 예비부품이나 새로운 전차의 투입을 차단하자 전차의 기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관 지역에서 낙동강을 도하하던 북한군 전차부대가 공습으로 거의 궤멸되기도 하였다.

8월 17일, 마침내 북한군 전차가 전장을 지배하던 상황이 끝나게 되었다. 왜관 일대를 방어하던 미 해병대의 퍼싱 전차가 90mm 포탄으로 공격해오는 북한군 T-34전차를 파괴시켰다. 나머지 3대도 퍼싱전차의 포격과 3.5인치 로켓포의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으며, 마지막 1대는 공습으로 파괴되고 말았다.²⁰⁾

9월 15일, 맥아더 원수는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이 주춤한 사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으며, 북한군은 내륙으로 진격한 한국군과 미군의 공세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기갑전력은 완벽한 열세였다.

9월 17일, 김포공항을 방어하던 T-34전차 6대가 미 해병대 제1사단의 퍼싱 전차부대와 교전 끝에 미군은 아무 피해도 없이 6대를 완파시켰으며,

18)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19) 전차를 원거리로 이동시킬 때는 열차나 트레일러로 옮겨 마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전투 투입시 기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20)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이런 식의 전차 사냥은 전차부대뿐만 아니라 3.5인치 로켓포와 무반동총용 대전차 고퍽탄 덕분에 보병들도 T-34전차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²¹⁾

9월 말에는 사실상 경기도 일대의 북한군 전차 대부분이 사라졌다. 미군 전차들의 주임무가 대전차 전투에서 서울 시내의 시가전으로 바뀌었고, 제대로 된 대전차병기가 부족하던 북한군 보병으로서는 시가전에서도 미군 전차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상황이 역전되자 낙동강 주변의 북한군은 다시 북으로 패주하기 시작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 특히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패튼 장군 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군인이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차부대를 선두에 앞세워 후퇴하는 북한군을 섬멸할 電擊戰(Blitzkrieg)²²⁾을 시작했다. 9월 21일, 서면전차를 주력으로 한 미 육군 제1기병사단 777특수임무부대 예하 린치(Lynch) 부대가 북서쪽으로 진격하던 중 북한군의 76mm 대전차포에 격파당하기도 하였으나, 불과 5일 뒤에는 수원에서 인천에서 내려온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부대와 연결이 되었다.²³⁾ 이처럼 궁지에 몰린 북한군 전차부대는 사실상 최후의 도전을 하게 되었다. 9월 27일 밤, 린치 특수임무부대에 10대의 T-34전차가 공격해왔다. 두 대의 서면전차가 격파당했으나 다른 서면이 T-34전차 8대를 격파하였으며 도주한 2대마저 추격하여 파괴하였다.

21)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22) 電擊戰(Blitzkrieg)이란 제1차 세계대전후 풀러(T.F.C. Fuller)와 리델하트(B.H. Liddel Hart)의 이론적 근거 위에서 후디어 전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습적인 기동으로 싸 공격을 실시하며 적을 격파하는 경이적인 급속작전이다. 이는 속전속결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동과 기습을 최대도 이용한 전법이다. 육군본부, 앞의 책, p. 465;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p. 355 참조.

23) 미 육군 제1기병사단 7기병연대 예하 1대대와 3대대로 주축을 이룬 777특수임무부대가 주공 선봉임무를 맡았다. 최선두의 린치(Lynch) 부대(3대대)는 1950년 9월 22일 08:00 시 경북 다부동 서쪽을 출발하여 낙동리-상주-보은-청송-천안-오산을 돌파, 9월 26일 22:26 미 제7사단 31연대와 오산 북방 약 6km지점에서 합류하였다. 린치 부대는 9월 26일 하루 동안에 보은으로부터 약 160km 이상을 진격한 셈이다.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부도』(일신사, 1981), p. 94 참조.

<표 2>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전차 및 장갑차주포의 종류와 성능²⁴⁾

구 분	한국군·유엔군					북한군	
	M4A3E8 Sherman	M-24 Chaffee	M-26 Pershing	M-46 Patton	M41 Centurion (영국)	T-34/85	SU-76
등 급	中	輕	重	中	重	中	장갑차
중 량 (ton)	34.8	20	46	46	57	35	12.35
장갑두께 (mm)	15~100	10~38	13~102	13~102	17~152	18~90	10~35
주 포 (mm)	76.2	75	90	90	105	85	76.2
최대속도 (mile/h)	26	34	30	30	21.5	34.2	28
항속거리 (mile)	100	100	100	80	118	186	166
승무원 (명)	5	4~5	5	5	4	5	4

10월에 접어들자 북한군 전차부대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0월까지 파괴된 북한군의 T-34전차는 239대였으며, 6·25전쟁 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242대가 사실상 궤멸된 것이다. 미군은 전차 1,300대를 한국 땅에 지원한 상태였다.²⁵⁾

(2) 장갑차주포

북한군은 전차 외에도 SU-76²⁶⁾이라는 뛰어난 장갑차주포를 보유하고 있

24)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25)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위의 자료 참조.

26) 소련군의 대포 중에는 대전차포 또는 일반 야포로 사용할 수 있는 포가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元祖'격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대한 양이 생산된 76.2mm 사단포들이다. 1932년에 등장한 76.2mm 사단포 M1939와 그 개량형인 ZIS-3(일명 M1942)이다. 소련군

었는데, 이 장비는 76.2mm 주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 지원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⁷⁾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에서 이런 대전차포 겸 야포의 임무를 톡톡히 수행한 무기체계가 바로 76.2mm 師團砲 M1939들이었다. M1939와 그의 개량형인 M1942(ZIS-3)는 평소에는 보통 대포처럼 곡사로 원거리의 적을 사격하지만, 유사시에는 그대로 대전차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포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직접조준²⁸⁾도 가능한 조준기가 달려있다. 단지 전차를 쏘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파괴시킬 수도 있다.

1942년까지만 해도 ZIS-3은 사실상 최고수준의 대전차포였으나,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효용성이 떨어지자 경전차 T-70의 차체에 얹어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장갑을 두껍게 하여 SU-70M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T-34전차와 같은 빛을 보지는 못했으나 전장에서의 효용성은 대단하였다. 적 전차에 대한 대전차포로서도 효용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병이 적의 기관총이나 방어진지 등에 막혀 진격하지 못할 때 화력지원을 하는 보병지원용 차량으로도 적격이었다.

전차가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이지만 전차는 원래 적진 깊숙이 돌파하는데도 수가 모자라는 것이 보통이고, 이럴 때 전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제작하기 용이한 SU-76M 같은 자주포가 체구실을 단단히 하는 것이었다. 주임무는 보병지원이었지만, 기갑부대를 위해서도 SU-76M은 쓸모가

의 중요한 곡사포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대전차포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M1942는 중량 6kg의 포탄을 초속 680m로 높은 관통력을 자랑했다. 독일군도 이 두 포를 소련군으로부터 노획하여 76.2mm 대전차포 M1939 혹은 76.2mm 야포 ZIS-3으로 명명하여 실전에 투입했다. 무기 부족 상태에서 적 장비를 사용한 예이지만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은 것도 사실이다. SU-76M의 주요 제원으로 길이 약 5m, 높이 약 2m, 무게 10.6톤, 70마력 가솔린 엔진 GAZ202(원래는 트럭용. SU-76M에는 2개 장착), 최고시속 45km 승무원 4명, 무장 76.2mm ZIS 사단포 1문(다른 무장은 없음)이다.

27)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28) 직접조준은 목표를 실제로 쳐다보면서 조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포병이 먼거리의 적을 쏠 때는 표적을 직접 보지 않고 쏘는 간접조준으로 사격한다.

많았다. 전차처럼 돌파임무는 수행하기 어렵지만 전차부대와 함께 행동하면서 화력지원을 하는 고전적인 자주포의 기동전에 매우 유용하였다. 1945년 생산이 종료될 때쯤에는 약 14,000대가 완성되었다.²⁹⁾ 전쟁이 끝났다고 SU-76M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T-34/85처럼 SU-76M이 많은 공산국가에 보급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5년 뒤인 1950년에는 당시 북한군의 주력장비 중 하나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T-34/85와는 달리 쉽게 격파가 가능하였다. 화염병만 하나 제대로 던져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SU-76M도 우리 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무기체계 중의 하나이다.

3. 화력무기의 운용

화력무기는 小火器(Small Arms), 대전차무기(Anti-tank Weapon), 화포(Gun), 탄약(Munition)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³⁰⁾ 이 중에서 소화기는 권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유탄 기관총 등의 총기류³¹⁾이다. 소화기는 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준사격 또는 지향사격으로 적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을 제압하는 무기이다. 이러한 소화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자동화를 추구해왔다.

대전차무기는 대전차 로켓포, 대전차 유도무기, 무반동총 등 주로 대기갑

29)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앞의 자료 참조.

30) 최석철, 앞의 책, pp. 81~82.

31) 銃器란 사람이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사격할 수 있는 구경 0.6인치 이하의 권총, 소총, 기관총과 같은 개인화기 및 소형 분대급 화기를 말하며, 휴대나 운반시 개인 또는 2인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화기 및 공용화기와 구분된다. 총기류의 발달사는 www.reportworld.co.kr/data/148/F147834.html 참조.

작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류를 말한다. 대전차무기의 임무는 전장에서 적 전차를 제압, 무력화 또는 파괴하는데 있다.

화포는 경·중(中)·중(重) 박격포류, 곡사포(견인, 자주), 평사포(견인, 자주) 등 지상작전의 화력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포류, 다련장, 무유도로켓 등의 로켓류, 해안에 설치하여 해상표적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포류, 함정에 장착하여 지상·대함·대공용으로 사용되는 함포를 말한다. 일반적인 화포 분류에서는 구경장을 사용한다. 즉, 포신의 길이와 구경의 비율에 따라 박격포(Mortar), 곡사포(Howitzer), 평사포(Gun)로 구분되는데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17세기 유럽에서 사용하던 개념이다. 박격포는 구경장이 10~20까지의 포이고, 곡사포는 구경장이 20~30까지의 포이며, 평사포는 구경장이 30 이상의 포를 말한다.

본장에서는 6·25전쟁에서 사용된 화력무기 중 소총, 기관총, 대전차무기, 박격포, 화포의 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소 총

소총은 전장에서 병사 자신을 보호하고 돌격사격, 방어사격 등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의 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가장 많이 사용한 소총은 M1 계열의 개런드(Garand)와 카빈(Carbine)이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되던 소총들이며, 반자동이라서 사격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³²⁾ 개런드 소총은 타 소총에 비해서 훨씬 무거웠으며, 근접전투나 저격용 소총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한편 아군에게 가장 많이 보급되었던 카빈 소총

32) 개런드(Garand) 소총은 1936년부터 미군의 표준소총(standard rifle)으로 사용되었으며, 1957년에 M14소총으로 대체되었고, 카빈(Carbine) 소총은 베트남전쟁 전까지 사용되다가 베트남전쟁 직전에 M16소총으로 대체되었다.

<표 3>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소총의 종류와 성능³³⁾

구 분	한국군·유엔군		북한군·중공군			
	M1 Garand	M1A1 Carbine	M1891 Mosin-Nagant	M1938 Carbine	PPSh-41	SVT 40
구 경 (mm)	7.62	7.62	7.62	7.62	7.62	7.62
전 장 (inch)	43.6 (110.3cm)	36.55 (90.5cm)	48.5 (123.1cm)	40 (101.5cm)	33 (83.8cm)	48.27 (122.1cm)
중 량 (lb)	9.8 (4.37kg)	5.7 (2.48kg)	9.92 (4.51kg)	8.32 (3.78kg)	8 (3.64kg)	8.9 (3.97kg)
총열 길이 (inch)	24	18			10.5	24.02
최대발사속도 (발/분)			8~10	8~10	900	600
유효사거리 (yard)	440 (400m)	300 (273m)	440 (400m)	440 (400m)		
탄창용량 (발)	8	15/30	5	5	35/71	10

역시 한반도의 혹독한 동계기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장진호 전투에 대한 기록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한국군의 경우 탄약의 거의 대부분을 미군지원에 의존하였는데, 개전후 1년간 미군에 의한 탄약보급량은 카빈 소총 4천만 발, M1 소총 1억 400만 발, 50mm 기관총탄 6천만 발 정도였다.³⁴⁾

개전 초기 북한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소총은 소련에서 제작된 M1 계열의 M1891과 M1938 카빈 등이었다. 또한 일본군 무기들이 북한지역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널리 사용된 일제 7.7mm 99소총이 개전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공산군은 또한 소총 외에도 기관단총(Submachine Gun)을 널리 사용하였는데, PPSH 41과 SVT 40 등은 중량

33) 나중남, 앞의 논문, p. 25.

34) 전쟁기념사업회, 앞의 책, p. 459에서 재인용.

은 가벼웠으나 최대 발사속도가 600~900발/분이나 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다. 특히 이 장비는 人海戰術(Human Wave Tactics)³⁵⁾이라고 알려진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서 수류탄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장비로도 유명하다.

(2) 기관총

기관총은 탄환의 발사속도가 분당 500~1,000발, 탄환속도는 400~800m/s, 유효사거리는 2~5km이다. 탄환의 장전·발사, 탄피의 방출 등 동작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방아쇠의 조작에 따라 연속·단발사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구경 11mm 이하의 것을 기관총, 그 이상의 것을 중기관총 또는 기관포라고 한다.³⁶⁾

한국군이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관총은 수냉식인 M1917A1이었는데, 이 총은 중량이 무겁고 기동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공격전투에서보다는 방어작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장진호 전투와 같은 동계작전시에는 더욱 진가를 발휘하여 아군의 작전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수냉식인 M1917A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M1919A4 기관총은 공냉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화력지원 능력 및 정확도에서 M1917A1에 미치지 못했다. M1918A2 브라우닝 기관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역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브라우닝 기관총은 6·25전쟁에서도 뛰

35) 人海戰術(Human Wave Tactics)이란 병력제한이 없는 군대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파상적인 공격으로 수적으로 압도하는 돌파, 포위, 침투를 병행한 전법을 말한다.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하여 수많은 돌파구를 형성·침입하여 방어 지역을 분단, 고립시키는 일종의 제파 공격전법이다.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p. 319 참조.

36) 6·25전쟁시 사용된 피아의 기관총에 관한 내용은 육군본부, 야전교범 23-55 『브로닝 기관총, 구경30 M1917A1, M1919A4, M1919A4E1, M1919A6 및 M37』(1955); 팸플릿 355-29-2, 『적의 장비 식별』(1953); 미 극동사령부, 앞의 책, Appendix I 참조.

어란 화력과 성능을 발휘하였는데, 보병 및 해병 분대마다 1~2정이 편제된 장비였다. 그러나 총열이 쉽게 가열되어 수시로 교체하여야 했으며, 중량이 무거워서 기동성이 제한되었다. 이 외에도 적의 차량을 주 표적으로 하는 M2HB와 같은 중기관총도 사용되었다.

한편 북한군은 1910년에 제작된 이후 여러 전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맥심(Maxim)류의 기관총을 사용하였는데, SG-43과 M1910 SPM 등이 그것이다. M1910 SPM은 대표적인 적군의 기관총으로 전면에 사수를 보호하기 위한 철제 방패막과 견인을 위한 U형 꼬리 및 바퀴가 특징이다. 이 기관총 역시 엄청난 무게에 의해서 기동성은 제약되었으나, 아군의 사격에 의한 방호와 안정된 사격이 가능했다. 특히 전쟁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SG-43은 PM1910의 대체무기로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개발된 비교적 최신 기관총이었다. 이 무기의 작동원리 및 설계는 비교적 복잡하지만 총열을 쉽게 교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화력지원이 가능했으며 고장률도 낮아서 북한군이 선호하던 기관총이었다.

<표 4>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기관총의 종류와 성능³⁷⁾

구 분	한국군 · 유엔군				북한군 · 중공군	
	M1917A1	M1918A2	M1919A4	M2HB	M1910 SPM	SG-43
구 경 (mm)	7.62	7.62	7.62	12.7	7.62	7.62
전 장 (inch)	38.5 (97.8cm)	47 (119.4cm)	41 (104.1)	65.1 (165.4cm)	43.6 (111cm)	45.3 (115cm)
중 량 (lb)	93 (42.3kg)	18.5 (8.33kg)	41 (18.5kg)	128 (57.8kg)	61 (69kg)	152.2 (27.7kg)
발 사 속 도 (발/분)	400~600	550	400~550	400~550	500~600	300~350
유효사거리 (yard)	1,100 (1,000m)	600 (550m)	1,100 (1,000m)	2,500 (2,287m)	1,100 (1,000m)	지상 100m 대공 500m

37) 나중남, 앞의 논문, p. 26.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화기의 전술적 운용방법에서 아군과 적군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들을 특정 사거리에 집중하여 통합해서 운용하려고 노력하였던 반면에, 북한군은 각 화기의 최대사거리 도달 이전부터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동은 탄약운반 및 보급지원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인데, 기관총의 경우에는 사격에서의 정확도보다는 아군에게 위협감을 주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3) 대전차무기³⁸⁾

대전차무기는 노이만 효과(Neumann Effect)를 이용한 누두상(漏斗狀) 작약탄환의 출현으로 초속에는 관계없이 관통위력을 발휘하고 저초속의 경(輕)화포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반동총에 로켓 장치를 붙인 3.5인치 로켓포(Rocket)도 출현하게 되었다. 3.5인치 로켓포는 보병의 개인 휴대화기로서 전차공격을 가능하게 했으나 사정거리가 짧아 최근에는 유도병기로서 대전차 미사일이 유력한 화기로 등장하였다.³⁹⁾

6·25전쟁 초기 전투에서 아군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적의 장비는 T-34전차였다. T-34전차는 중량이 35톤 정도의 중(中)전차였는데, 개전 이전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차무기인 57mm 대전차포와 바주카(Bazooka)포⁴⁰⁾로 알려진 2.36인치 로켓포로는 제압할 수 없었다.

38) 6·25전쟁시 사용된 여러 종류의 대전차무기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야전교범 23-80 『57mm 무반동총』(1980); 펄플릿 355-29-2 『적의 장비 식별』(1963); 미 극동사령부, 앞의 책, Appendix I 참조.

39) 최석철, 앞의 책, pp. 96~97.

40) 대전차공격용의 큰 위력을 가진 로켓탄 발사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6·25전쟁 당시 미군이 2.36인치 로켓포를 사용하였다. 가볍고 간단한 滑腔砲身의 발사통으로 포신의 앞 끝이 나팔모양으로 넓은데, 이것이 당시의 희극배우 B. 번스

그러나 2.36인치 로켓포가 적 전차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90m의 유효사거리 이내까지 접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적 전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라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개전 이전부터 적 전차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해 두었던 대부분의 대전차무기들이 서울의 함락과 함께 대부분 적에게 노획되었기 때문에 적 전차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⁴¹⁾

1950년 7월 중순에 6·25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장에 등장한 3.5인치 로켓포⁴²⁾에 의해 적 전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2.36인치 로켓포가 T-30 계열의 전차를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능이 강화된 새로운 종류의 대전차무기를 개발해오던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3.5인치 로켓포를 투입하여 적 전차를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대전전투에서 미 육군 제24보병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이 직접 이 장비로 적 전차를 제압했던 사실은 유명한 일화이다.⁴³⁾ 이를 통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비로소 가졌던 전차 공

가 애용하던 나팔, 바주카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바주카(Bazooka)포’라고 명명되었다. 병사 한 명이 어깨에 메고 다른 한 사람이 탄약을 장전하여 조준, 발사한다.

41) 개전 초기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할 당시 한국군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무기를 한강 이북에 남겨두었으며, 탄약 재고품도 80% 이상 유기하였다.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1992), p. 459.

42) 6·25전쟁 초기 북한의 소련제 T-34전차가 38도선을 넘어 남침했을 때, 한국군에는 이들에 대항할 대전차무기가 거의 없었다. 당시 보유중이던 3.5인치 로켓포를 한국전선에 공수하여 배치함으로써 적전차를 막을 수 있었다.

43) As told to William L. Worden by Major General William F. Dean, *General Dean's Story*(New York: The Viking Press, 1954), pp. 33~35 참조; 1950년 7월 하순 대전전투시 딘 장군이 3.5인치 로켓포로 북한군 T-34전차를 격파하는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In the days before July 20, 1950 I was getting intelligence reports from Korean Army sources ... I don't think I'm normally a brutal man, but I had just one idea. I think I said, “Hit them again!” and pointed to a spot on the other side of the turret. The bazooka(3.5" Rocket Launcher) fired and more plaster cascaded, exposing the cornstalks to which most Korean plaster is stuck. A third time the bazooka fired, and the screaming finally stopped. Smoke rose from the tank(T-34 Soviet made tank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t was very quiet in the street”

포증은 해소될 수 있었다. 한편 6·25전쟁 말기에 배치되기 시작한 M20 75mm 대전차포는 약 440m 정도의 거리에서 움직이는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의 대전차무기였다.

공산군 역시 여러 가지 종류의 대전차무기를 사용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Elephant Gun 혹은 Buffalo Gun으로 불린 14.5mm 1941년형 PTRD였다. 이 장비는 북한군 보병사단에 36정이 편제되었는데, 이 장비의 장갑관통력은 25mm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적군도 아군 전차를 제압하기 위해서 57mm 1943년형 대전차포를 새롭게 전장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군은 이 외에도 85mm 및 100mm 구경의 대전차포들을 사용하였다.

<표 5>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대전차무기의 종류와 성능⁴⁴⁾

구 분	한국군 · 유엔군				북한군 · 중공군	
	M18 57mm	M19A1 2.36inch	M20 3.5inch	M20 75mm	PTRD-1941 14.5mm	M1943 57mm
포 열 길이 (inch)	60 (150cm)	61 (152.5cm)	60.25 (150.6cm)	76 (190cm)	78.7 (196.8cm)	164 (410cm)
총 중 량 (lb)	45 (20.2kg)	15.14 (6.8kg)	15 (6.7kg)	114.5 (51.5kg)	38.2 (17.2kg)	2,535 (1,140kg)
최대사거리 (yard)	4,300 (3,930m)	400 (365.6m)	960 (877.5m)	7,000 (6,398m)		9,200 (8,409m)
유효사거리 (yard)		120 (109.7m)	150 (137.1m)			550 (502.7m)
장갑관통능력 (inch)		5 (12.7cm)	11 (27.9cm)		0.985 (2.5m)	5.6 (14.2cm)

44) 나중남, 앞의 논문, p. 29.

(4) 박격포⁴⁵⁾

미국 육군의 중(中)박격포인 60mm와 81mm 박격포는 독일군이 개발한 81mm 박격포로서, 목재 포관과 활강식 포열로 중량 52kg에 사거리 약 2km로서 그 위력이 대단하였으며, 그 후 점차 화력지원용으로 최일선에서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현재의 박격포 형상을 갖춘 것은 1930년에 개발되었다.⁴⁶⁾

6·25전쟁 초기에 전장의 지형에 가장 잘 적응한 장비는 단연히 박격포였다. 소총중대부터 편제된 박격포는 중량에 비해서 월등한 파괴력을 지녔으며, 포병의 지원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보병이 운용한 포병(the Infantry’s Artillery)’으로 불릴 정도였다. 특히 1950년 11월과 12월에 중공군은 공군 및 포병화력의 지원 없이 박격포의 화력만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한국군의 소총중대 편제장비인 60mm M19박격포는 M2박격포의 성능을 강화시켜 포구장전에 의한 직접사격(Drop Fire) 및 격발사격(Lever Fire)이 모두 가능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포열을 수평으로 놓고 적을 직접조준하여 사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거리는 탄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고퍽탄의 경우 최대사거리는 3,500m 정도였다. 보병대대의 중화기중대에 6문이 편제된 81mm M1 박격포는 각종 주·야간 전투에서 최대사거리를 활용하여 후방에서 소총중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사용하였다. 4.2인치 M30박격포의 사거리는 약 5km이었으며, 보병연대의 편제장비였다.

북한군에는 중대급에 61mm 박격포 2~3문, 대대급에 82mm 박격포 9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군의 60mm 및 81mm 박격포의 포탄을 노획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던 화기들이다. 북한군 보병연대에 6문이 편제된 M43

45) 6·25전쟁시 사용된 박격포의 종류 및 성능에 관한 내용은 육군본부, 야전교범 23-85-1 (초안) 『60mm 박격포』(1965); 육군본부 야전교범 23-85(초안) 『81mm 박격포』(1987); 야전교범 23-92 『4.2인치 박격포』(1975); 팸플릿355-29-2 『적의 장비 식별』(1963); 미 극동사령부, 앞의 책, Appendix I 참조.

46) 최석철, 앞의 책, pp. 114~115.

120mm 박격포는 소련에서 제작된 가장 대표적인 박격포로서 조작방법이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아군의 81mm 및 60mm 박격포의 포탄도 사격이 가능한 전천후 장비였다.

일반적으로 박격포는 장비의 특성상 전장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적 직사화기로부터의 위협은 없었으나, 적과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능선 후사면과 같은 곳에 위치하여 최대한 근접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한 효과적인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관측자를 배치하여 사격을 유도해야 했으며, 중요한 표적에 대해서는 전투 이전에 미리 제원을 획득하여 기록사격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만 했다. 한편 60mm, 81mm, 4.2인치 박격포를 사거리에 맞게 운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부대의 포병화력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분산 및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탄약의 보급

<표 6> 6·25전쟁에서 사용된 박격포의 종류와 성능⁴⁷⁾

구 분	한국군 · 유엔군				북한군 · 중공군	
	M2 60mm	M19 60mm	M1 81mm	M30 4.2inch	M1937 82mm	M43 120mm
구 경 (mm)	60	60	81	105	82	120
포 열 길이 (inch)	28.6 (72.6cm)	32.25 (81.9cm)	51.2 (130cm)		48 (121.9cm)	
총 중 량 (lb)	42 (19.1kg)	45.2 (20.6kg)	136 (62kg)	626 (283.5kg)	468.2 (212kg)	1104.2 (500kg)
유효발사속도 (발/분)	30~35	30~35	30~35	10~20	25	15
최대사거리 (yard)	1,985 (3,500m)	1,985 (3,500m)	3,290 (4,737m)	6,500 (5,650m)	1,724 (3,040m)	3,233 (5,700m)

47) 나중남, 앞의 논문, p. 27.

지원이었다. 81mm M1박격포의 고퍽탄인 M43A1 1발의 무게가 4.2kg이었으며, 각종 전투에 적절한 화력지원을 위해서는 후방 전투근무지원부대 및 노무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5) 화 포⁴⁸⁾

곡사포는 견인포와 자주포로 구분한다. 견인포는 포를 이동시킬 경우 차량으로 견인하여 이동시키는 곡사포이다. 자주포는 포 자체의 기동력을 사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곡사포이다.

최초 자주포가 등장한 것은 1920년에 독일에서 전차 자체에 야포를 설치함으로써 자주포가 등장하였으며, 자주포는 자체 기동력이 부여됨으로써 신속한 이동준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형과 기상에도 견인포보다 제한사항이 적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1959년 미국은 155mm 자주포를, 1960년에는 8인치 자주포를 개발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자주포를 포병의 주력 무기체계로 채택하여 개발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중에도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최대사거리 150km 수준의 파리스건, 레일건 등 가공할 만한 화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 통신, 신소재, 레이저, 광학,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의 첨단기술이 자주포 분야에 적용되면서 획기적인 성능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7>는 최근 세기의 화포 발달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48) 6·25전쟁시 사용된 포병화기의 종류와 성능에 관한 내용은 육군본부, 야전교범 6-75 『105mm 곡사포:견인 M101 계열』(1969), 야전교범 6-75 『105mm 곡사포:M101견인』(1979); 『야전교범 6-88, 155mm 곡사포:M109 자주』(1974); 야전교범 6-81-1(초안) 『155mm 곡사포』(1983); 주특기교범 131-130 『전포:105mm, 155mm, 8인치, 175mm 곡사포/평사포』(1989); 팸플릿 355-29-2 『적의 장비 식별』(1963); 미 극동사령부, 앞의 책, Appendix I 참조.

<표 7> 19세기 중반~20세기 중반의 화포 발달과정⁴⁹⁾

연 도	발 전 추 세	발 전 내 용
1856	○ 크리미아 전쟁 - 포병의 역할 강조	○ 포병의 질적 향상 연구 시작 - 강선포 채택, 철제포신 등장
1897	○ 주퇴복좌기 적용 곡사포	○ 프랑스 75mm 견인 곡사포 등장
1910	○ 탄막사격 개념도입 및 간접사격(전투지역:2마일)	○ 제1차 세계대전 초기 - 프랑스 4문:1개 포대 - 독일 1문:1개 포대
1938	○ 장거리포 등장	○ 독일: 파리스건(150km)
~1941	○ 미국 독자적인 곡사포 개발 (전투지역:10마일)	○ 105mm 곡사포(1938): 11km ○ 155mm 곡사포(1941): 14.7km
1947 ~1958	○ 자주포 등장(미국)	○ 155mm 자주포 M44개발: 14.6km ○ 105mm 자주포 M52개발(1950): 11.3km ○ 105mm 자주포 M108개발(1958): 11.5km

6·25전쟁 초기 북한군은 122mm 신형곡사포를 비롯하여 총 552문의 곡사포를 보유하는데 비해 한국군은 105mm M3곡사포 91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군은 120mm 박격포를 포함한 총 1,728문의 박격포를 보유하는데 비해, 한국군은 81mm 박격포와 60mm 박격포를 합하여 960문을 보유하고 있었다.⁵⁰⁾ 야포의 사거리면에서도 당시 한국군 화력의 핵심이었던 105mm M3곡사포는 북한군 포병의 주무기인 122mm 곡사포 사거리의 약 1/2정도였다.⁵¹⁾ 6·25전쟁 말기의 진지전을 상징하는 장비는 단연히 105mm, 155mm, 8인치 곡사포 등을 포함한 포병장비이다. 실제로 많은 양의 포탄이 적을 향해 날아갔으며, 또 아군의 진지를 위협하였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베르덩

49) 최석철, 앞의 책, pp. 104~105.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p. 680~681.

51)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1985), p. 327 참조.

(Verdun) 전투⁵²⁾를 상기하는 듯한 쌍방간의 포격에 의해서 각종 작전수행 및 기동형태 등에서 큰 변화가 뒤따랐는데, 이와 같은 6·25전쟁 말기의 전선교착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 포병화기였다.

공산군 역시 포병화력의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장비 및 포탄을 투입하였다. 개전 초기부터 북한군의 포병화력은 대단한 수준이었다. 우선 사단에 122mm 곡사포 12문, 76mm 야포 24문, 76mm 자주포 12문, 45mm 대전차포 12정이, 예하 3개 연대에는 4문의 76mm 곡사포와 122mm 야포 등이 편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의 박격포들까지 포병화기로 분류하여 전투부대를 지원하였다. 특히 중공군과 북한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포병이 유일한 화력지원 수단이었으므로 포병화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다.

<표 8> 6·25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포병화기의 종류와 성능⁵³⁾

구 분	한국군·유엔군			북한군·중공군	
	M105 105mm 곡사 견인	M109 155mm 곡사 견인	M115 8inch 곡사 견인	M1942 76mm 곡사 견인	M1938 122mm 곡사 견인
구 경 (mm)	105	155	203	76.2	122 (4.8inch)
중 량 (lb)	(2,300kg)	14,783 (6,855kg)	(13,500kg)	2,460 (1,107kg)	4,960 (2,300kg)
최대사거리 (yard)		19,793 (18,100m)		14,545 (13,236m)	12,904 (11,800m)
발사속도 (발/분)	3~10	2~4	1~2	25	5~6

52) 1916년 2월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의 동북방 약 200km 되는 베르딩(Verdun) 지역의 요새를 공격하여 함락하기도 하였으나, 프랑스군이 가을에 반격하여 12월 18일에는 이 지역을 되찾음으로써 프랑스군 542,000명, 독일군 434,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쌍방이 출혈을 보면서 끝이 났다. 김행복 외, 『20세기 지구촌 전쟁』(병학사, 1996), pp. 36~37 참조.

53) 나중남, 앞의 논문, p. 30.

4. 지상무기 운용분석과 영향

(1) T-34전차의 운용과 전차의 도입 필요성 대두

한국군이 단 한대의 전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은 76mm 주포를 가진 소련제 T-34전차 242대를 앞세운 보·전·포 협동공격으로 3일만에 수도 서울을 탈취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군이 보유한 대전차무기인 2.36인치 로켓포로는 이동하는 적 전차를 격파할 수가 없었다. 7월 18일 대전 전투에서 추가로 투입된 3.5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다. 북한군 T-34전차와 맞서기 위하여 1950년 7월 미군의 소형 M-24 채피전차를 투입하였으나 성능이 약하여 8월과 9월 이후 90mm 주포를 가진 M-26 퍼싱 전차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명성을 날린 M4A3 셔먼전차, 영국군의 M41 센추리온전차를 투입하였다. M-46 패튼전차도 투입하였으나 차체가 커서 한국지형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북한군의 주력전차인 T-34전차는 1944년에 완성되었으며, 35톤의 중량을 가졌으나 시속 55km의 신속한 기동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지형에 적합한 전차였으나, 유엔 공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장거리 기동에 따른 이동운반체 미비 등 보급지원에 애로점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은 대전차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적 전차를 견제 및 제압하려 하였을 뿐, 유럽전역에서와 같은 대규모 전차 운용을 시도하지 않았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낙동강 전선에서 전차부대를 선두에 세워 후퇴하는 북한군을 섬멸할 전격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유엔 공군의 공습으로 적 전차의 전진속도를 늦추는데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한국지형에 맞는 전차의 운용으로 적 전차의 제압이 가능했고, 대전차무기의 효과성도 입증된 계기가 되었으나 한계점이 있었으며, 한국군의 전차 도입과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SU-76 장갑자주포의 활약

북한군이 6·25전쟁 초기 176대를 보유했던 SU-76 장갑자주포는 76.2mm 주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지원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보병지원용 차량으로 효과적이었다. 전차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이 용이하며, 전차처럼 돌파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지만 전차부대와 협동으로 화력지원을 하는 고전적인 자주포의 기동전을 수행하였다.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6·25전쟁 초기 자주포가 한 문도 없던 한국군에게는 T-34전차와 더불어 공포의 대상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T-34전차와는 달리 장갑력이 약하여 화염병만 하나 제대로 던져도 쉽게 무력화가 가능하였다. 이후에도 장갑력이 강하며 생존력이 높고 화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주포의 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다양한 소총의 운용과 발전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사용한 소총은 M1계열의 개런드 소총과 카빈 소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한 소총이었으며, 반자동식이라서 사격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북한군은 소련제 M1계열의 M1891과 M1938 카빈 소총과 일본이 남기고 간 7.7mm 99식 소총을 많이 사용하였다. 공산군은 PPSH 41과 SVT 40 등 기관단총은 중량이 가볍고 최대발사속도가 600~900발/분이나 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소총을 널리 사용하였으며, 특히 중공군은 인헤전술로 공격시 수류탄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4) 기관총의 전술적 운용방법 차이

한국군이 방어작전시 많이 사용한 기관총은 수냉식인 M1917A1이었는데,

중량이 무거운 단점이 있으나 장진호 전투와 같은 동계작전시 사용되었다. M1919A4 기관총은 공랭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화력 발휘와 정확도가 낮았다. 따라서 M1918A2 브라우닝 기관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바 있고 6·25전쟁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성능을 발휘하였는데, 보병 및 해병 분대마다 1~2정을 편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총열이 쉽게 가열되어 수시로 교체해야 했으며, 중량이 무거워 기동성에 제한이 많았다. 북한군은 PM1910의 대체무기로 SG-43 기관총을 운용했는데 총열을 쉽게 교환할 수가 있어 안정된 화력 발휘를 할 수가 있었다.

화기의 전술적 운용방법면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각 화기의 최대사거리 도달 이전부터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탄약운반과 보급지원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인데, 기관총의 경우에는 사격에서의 정확도보다는 아군에게 위협감을 주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5) 대전차무기의 효과성과 한계점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T-34전차를 제압하기 위하여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를 운용하였다. 2.36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90m의 유효사거리 이내까지 접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적 전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야 가능했을 것이다. 개전 초기 비축해 두었던 대부분의 대전차무기들이 서울의 함락과 함께 적에게 노획되어 적 전차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1950년 7월 중순에 등장한 3.5인치 로켓포에 의해 적 전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공산군은 아군 전차를 14.5mm 1941년형 PTRD를 북한군 사단에 36정이

편제 되었으나 관통력이 25mm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57mm 1943년형 대전차포를 투입·운용하게 되었고, 85mm와 100mm 구경의 대전차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에서 대전차무기의 운용 결과로 얻은 효과성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최신무기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 박격포탄의 호환성과 전투근무지원

소총중대부터 편제된 박격포는 중량에 비해서 월등한 파괴력을 지녔으며, 포병의 지원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보병이 운용한 포병’으로 불렸다. 1950년 11월과 12월에 중공군은 공군 및 포병화력의 지원없이 박격포의 화력만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하였다. 한국군의 연대급에 4.2인치 박격포, 대대급에 81mm 박격포, 중대급에 60mm 박격포를 편제하여 운용하였다. 81mm는 보병대대의 중화기중대에 6문이 편제되어 각종 주·야간전투에서 최대사거리를 활용하여 후방에서 소총중대를 지원하였다.

북한군은 중대급에 61mm 박격포 2~3문, 대대급에 82mm 박격포 9문, 연대급에 M43 120mm를 편제하여 운용하였으며, 아군의 81mm 및 60mm 박격포 포탄도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장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각종 전투의 화력지원을 위해서는 후방 전투근무지원부대와 노무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7) 포병화기의 집중운용과 전투부대 화력지원

6·25전쟁 말기 진지전을 상징하는 장비는 단연히 105mm, 155mm, 8인치 곡사포 등을 포함한 포병장비이다. 실제로 많은 양의 포탄이 적을 향해 날아갔으며, 또 아군의 진지를 위협하였다. 6·25전쟁 말기의 전선교착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 포병화기였다.

공산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포병이 유일한 화력지원 수단이었으므로 포병화력의 우위를 점하고 전투부대를 강력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집중운용을 하였다. 북한군은 사단에 122mm 곡사포 12문, 76mm 야포 24문, 76mm 자주포 12문, 45mm 대전차포 12정이, 예하 3개 연대에는 4문의 76mm 곡사포와 122mm 야포 등이 편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의 박격포들까지 포병화기로 분류하여 전투부대에 화력을 지원하였다.

5. 결 언

지금까지 6·25전쟁에서 한국군 및 유엔군과 공산군이 사용했던 지상무기의 운용과 전쟁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기동무기의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동무기 가운데 전차와 장갑자주포의 운용에 대한 것이었다. 6·25전쟁 초기 북한군은 T-34전차(1944년 소련 제작, 주포 85mm, 중량 32톤, 시속 55km, 항속거리 300km) 242대를 운용하였다. 기동력이 우수하고 한국지형에 적합하였으나 운반수단 없이 300km 이상의 기동으로 가동률이 저하되었다. 유엔군은 개전 3일만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적 전차를 격멸하기 시작했다. 1950년 9월말 전차부대를 앞세워 북한군을 섬멸할 전격전도 시행하여 10월 말에는 T-34전차를 사실상 궤멸시켰다.

유엔군이 운용한 전차는 미국제 M-24 채피(Chaffee), M26 퍼싱(Pershing), M4A3 셔먼(Sherman) 및 M46 패튼(Patton)전차와 영국제 M41 센추리온(Centurion)전차였다. 미군은 대전차무기를 사용하여 적 전차를 견제 및 제압하려 하였을 뿐 대규모 전차 운용은 시도하지 않았다. M41 센추리온과 M46 패튼전차는 한국지형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SU-76 장갑자주

포(주포 76.2mm)는 주로 보병을 지원했으며 전차와 같은 돌파임무에는 부적합하지만 전차부대와 협동으로 화력지원을 하는 고전적인 자주포의 기동전을 수행하였다. 장갑이 약하여 T-34/85와는 달리 쉽게 격파되었으나 많은 활약을 한 무기체계이다.

두 번째는 화력무기의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필자가 관심을 끈 것은 소총, 기관총, 대전차무기, 박격포, 화포의 운용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제2차 세계대전시 사용되었던 M1계열의 개런드(Garand)와 카빈(Carbine) 소총을 사용하였다. 개런드 소총은 반자동으로 타 소총에 비해서 무거웠으며, 근접전투나 저격용 소총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카빈 소총은 동계기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개전 초기 북한군은 소련제 M1891, M1938 카빈 소총과 일본제 7.7mm 99소총을 사용하였다. PPSH 41과 SVT 40 같은 기관단총은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공격시 수류탄과 함께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군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기관총은 수냉식인 M1917A1, 공랭식 M1919A4, 브라우닝(Browning)이었다. 북한군은 맥심(Maxim)류의 기관총 SG-43과 M1910 SPM을 사용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들을 특정 사거리에 집중하여 통합해서 운용하였다. 북한군은 각 화기의 최대사거리 도달 이전부터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여 아군을 기선제압하였다.

한국군은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를 운용하였다. 2.36인치 로켓포는 성능이 부족하여 T-34전차를 제압할 수 없었으나, 75mm 대전차포는 약 440m 거리에서 이동하는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대전차무기인 14.5mm PTRD(1941년형), 57mm(1943년형), 85mm, 100mm 대전차포를 운용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60mm, 81mm, 4.2인치 박격포를 운용하였다. 81mm는 주·야간전투에서 보병임무 지원용으로 운용되었다. 북한군은 61mm, 82mm, 120mm 박격포를 아군의 60mm와 81mm 박격포 포탄을 노획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운용하였다.

6·25전쟁 말기 진지전 수행시 한국군과 유엔군은 105mm, 155mm, 8인치 고사포를 운용하였다. 북한군은 개전 초기부터 122mm 곡사포, 76mm 야포, 76mm 자주포, 45mm 대전차포를 운용하였으며, 대구경 박격포들까지 포병화기로 분류하여 전투부대를 지원하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포병이 유일한 화력지원 수단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상무기의 운용분석과 전쟁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았다. 북한군은 T-34전차를 앞세운 보·전·포 협동공격으로 3일만에 수도 서울을 탈취하였는데, 대전차무기로는 적 전차를 제압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한국지형에 적합한 전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SU-76 장갑자주포는 76.2mm 주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지원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보병지원용 차량으로 효과적이었다. 피아간에 다양한 소총이 운용되었으나 사격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중공군은 인해전술로 공격시 수류탄과 함께 기관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기의 전술적 운용 방법면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북한군은 각 화기의 최대사거리 도달 이전부터 화기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박격포는 중량에 비해서 월등한 파괴력을 지녔으며, 포병의 지원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보병이 운용한 포병'으로 불렸다. 중공군은 공군 및 포병화력의 지원 없이 박격포의 화력만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아군의 81mm 및 60mm 박격포의 포탄도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장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각종 전투에 화력지원을 위해서는 후방 전투근무지원부대와 노무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공산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포병이 유일한 화력지원 수단이었으므로 화력의 우위를 점하고 전투부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집중운용을 하였으며, 대구경의 박격포들까지 포병화기로 분류하여 전투부대에 화력을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6·25전쟁에 사용된 대부분의 한국군 및 유엔

군과 공산군의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운용되었던 것들이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은 대량의 무기가 투입·운용된 국제적 전쟁이었으며, 무기체계의 운용면에서도 제한전쟁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현지 지형에 적합한 무기의 도입·운용, 교리의 발전, 무기의 성능 개량·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전쟁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4. 6. 21,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6·25전쟁, 무기체계, 전차, 소화기, 화포



<ABSTRACT>

The Employment of Ground Weapon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Kang, Chang-kook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employment of ground weapon system of friendly or foe during the Korean War. During the Korean War from 25 June 1950 to 27 July 1953, friendly forces including the ROK Armed Forces and UN Allied Nations including the USA, and foe forc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and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employed the various kinds of weapon system. Those weapons were used the Second World War. Some of them were modified when necessary.

The Korean War was the International War that executed the massive of weapon, and the Limited War in the employment aspect of weapon system. Major weapon system employed in the war, were the conventional weapons such as tanks, armored vehicles, small arms, machine guns, anti-tank weapons, mortars, and guns even though th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had developed alread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jor maneuvering weapons and fire power weapons of the ground weapon system employed during the Korean War, we can obtain the lessons and effects to the war as the followings:

Without of any warning, the NKPA led by 242 T-34 tanks made in USSR, struck all across the 38th parallel with synchronized preparatory field artillery and mortar fire, and occupied Seoul, the Capital, in three days.

The ROK Armed Forces could not destroyed the tanks due to its capability. Consequently, the ROK Armed Forces maneuverable in the Korean peninsula, needed strongly tanks. And the friendly forces' tanks such as M24 Chaffee, M26 Pershing, M4A3E8 Sherman, M46 Patton, and M41 Centurion were employed.

The NKPA's 176 SU-76 Armored Vehicles equipped 76.2mm gun, were employed with the tanks and 211 fighters by the NKPA during the Korean War. Its major role was fire support for ground troops with its main gun, and its firepower was effective to the infantry units. Various types of small arms such as M1 Garand and Carbine, M1891 and M1938 Carbine, were employed, but those weapons had limitations for firing. The CCF used PPSH-41 sub-machinegun with hand grenades when they were execution the human wave tactics. In the dimension of employing fire weapons, the ROK Armed Forces and UN Allied Nations employed various small arms separately, but the NKPA and CCF used various types of small arms in separate before reaching their effective ranges.

Mortars called 'the Infantry's Artillery' had strong destructive power comparing their weight, and employed in the mountain areas where howitzers could not support their fire power. The CCF employed mortars without howitzers, and turned out favorable for them. The NKPA employed 61mm and 82mm mortars which could use the friendly shells of 60mm and 81mm mortars. The combat service support and civilian service corps' support in the rear area, were essential in order to fire support for various combats.

The reason why the communist forces lost the air supremacy in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the sole means of fire support was the artillery including 122mm howitzers, 76mm guns, and 45 anti-tank guns. To obtain superior in fire, and support combat units, the communist forces concentrated and employed various fire weapons such as howitzers, guns, and mortars, and even they classified the large calibered mortars as the fire weapon, and supported fire power for the combat units.

Throughout the Korean War, we can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at the weapon suitable to the Korean peninsula need to introduce and employ, the doctrine need to develop, and the performance of weapon system need to modify and develop, too.

Key Words : Korean War, Weapon System, Tank, Small Arms, Howitzer

K C I